

## 韓稚振氏의 『人性의 本質論』을 읽고 (二)

朴明茁

吾人は 街學的 態度에 出할 만한 맑스 學徒로써의 自信도 업고 또한 諸 學  
術에 자랑할 만한 아모 것도 所持치 못하였다. 그러나 한 個의 退出된 現象  
이 正體가 不分明하면서도 害될 念慮가 잇슬 쟈는 이것을 徹底히 檢討 批判  
하여서 內容을 暴露하여 毒素을 除却해 버리든지 或은 病的 的現象의 標本  
으로써 陳列箱 內에 存置하여도 無妨 할 것 같다.

◇-◇

以上 韓氏의 所論을 吟味하여 보건데 自然科學도 쓸대업고 社會主義도 쓸  
대업고 다만 偉大한 新發明이 잇서 人間의 모든 問題를 永解 할 수가 잇다  
고 賣藥의 効能書를 明讀하였스나 反動이 아니면 錯覺이고 그란이면 奇術의  
舊脚本을 演出하였슬 쟈이다.

무엇보담도 人間에게 일어나는 모든 問題는 人間을 支配하는 決定的 要件  
인 物質 生産 分配 等 物質關係에 잇는 것을 抹殺 否定하고 『나』는 무엇을  
恒常하라는 執力이다. (中略)이 活動은 他律的이 아니요, 自律的이다.....그  
目的은 自我發育이니 곳 自我內包에 潛在하여 잇는 宇宙的 眞理를 表現하  
는 것이다.』라고 해야 人間의 獨特 超越 自律을 구지 主張하는 것은 果然事  
物을 觀念的으로나마 正常히 把握한 것일까?

◇-◇

다시 우흐로 潮及해야 韓氏는 社會主義란 것을 엇던 것으로 理解하셨는지  
社會現想을 重要視하여서 材料를 整頓하여보다가 마치 『랜토겐』氏가 偶然히  
發見한 X光線이 胃癌에 特効가 잇스리라고 하여서 胃癌 患者에게 施術하여  
보듯이 偶然히 發明한 社會主義를 社會의 不安症에 擬當해 본 것이겠슬까?  
여기에 밧서 韓氏의 無定見을 餘地업시 暴露하였다고 볼 수 잇스니 學術的  
知識은 몰나도 社會主義란 것은 比하자면 人間의 血液이 身體의 一部分에만  
病的으로 充滿되고 다른 機關은 貧血的 現象을 나타내어 이것의 回復과 均

衡運動이 그것일 줄 맞는다. 뿐만 아니라 韓氏는 社會主義로서 解決하라 해도 人性이 複雜함으로 그 不可能을 自覺하고 다시 人性의 本質을 究明코저 하는 新發明으로 옮겨가며 社會主義를 □棄한 것 가티 말하였으나 그것이 決코 實際가 아니 것 贊言 할 必要가 업다. 그야말로 自己欺罔의 妄斷이고 □語다.

◇-◇

果然近代의 쓸조아지-는 그들에게 屬從하는 御用學者 奇術師들의 窮思□得한 詭辯을 써서 人間의 不平等은 人間의 本性에 있다. 人間性이 本質적으로 參差하게 先天的 決定的으로 생겨난 까닭에 現實의 모든 制度는 人性에 基因한 合當한 것이라고 하고 더욱 이 물(水)은 水素素熱의 混合物인 것을 (近代는 이것도 電子의 集成이라 한다.)否認하고 물의 不可分的인 本質을 찾다가 實驗의 無豫見 中에 三體로 飛散한 空虛한 試驗管을 들고 失心하는 科學者가튼 人性本質 追求者를 보면 그 不可思議와 神秘를 말하야 運命論的 桎梏에 閉하여 降服을 받은 後에는 自己들의 代辯者로 만들어 버리나니 韓氏가 이가 온데한가지 役割을 하지나 안느냐? 韓氏가 錯覺인지 正題인지 或은 □□인지를 씻스니 릿셀氏의 樹木의 보는 見地의 性質과 數가 다르니 만큼 그 樹木의 性質과 現象 및 個數까지라도 달리 나타난다고 한 말을 引用하여서 모든 現象은 自我究明에서라는 論證으로 하였다. 그러나 設例의 樹木은 觀者의 主觀的 條件에 달는다는 것은 그것이 樹木의 木體을 조꿈도 左右하는 것도 아니고 觀者의 本性도 左右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東에 섰는 樹木을 西에서 觀察한다. 두 個의 條件-樹木人間-에 싸라 그 두 條件의 合致(合理的 現象)가 나타날 뿐이고 이 樹木의 完全한 存在나 本性을 말하는 것은 各異한 모든 條件의 抽象的 總體를 代稱하는 것이니 同一한 條件 下에 둔다면 同一한 現象이 나타날 것 外에 別問題가 업다. 그러타고 하면 自我의 本性을 究明한 後에 對象을 規定하자는 것은 自我를 究明하야서 對象을 規定하자는 그 自體로서 妥當한 것이고 다시 自我 客觀現象의 總合的 究明을 하자면 그 亦의 現象自體로 妥當한 것이나 이것이 東에서 近視限 者가 본 것과 西에서 遠視限者가 樹木의 色彩와 數를 中心으로 한 觀察의 結果와 달으다고 하여서 樹木은 觀者의 態度에 얽아 달으다는 主張은 그 自體로 一理가 잇스면서 同一한 視度 同一한 場所 時間 同一한 主觀的 條件 下에 觀察하였드면 亦是 꼭 가튼 結果 卽 두 條件의 合致가 잇섯스리라는 것을 이즌 것이니 그것은 條件이 同一하게 合致하면 同一한 結果다된다는 論證은 될지언정 그래서 人間社會의 모든 問題는 條件에 싸라 決定된다는 理論을 가르칠지언정 人性의 本質이 唯一이고 自然科學이나 社會主義는 그 不可한

人性의 本質에서 울어난다는 證據는 되지 못한다.